

심할경우 목조건물 붕괴 가능성

해인사 흰개미 방제대책 '비상'

방의제 처리등 미봉책에 의존 실정 전국사찰 흰개미 서식조사 시급

해인사 응향각(주지실)과 사운당(종무소)에서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인 국보 52호인 장경판전과 국보 32호인 대장경판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응향각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 장경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에서 흰개미가 처음 발견된 것은 4월, 그러나 뒤늦게 방제처리에 나서 목조건물에 대한 보존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흰개미란 나무를 주먹으로 하는 흰개미는 지하에 서식하고 있다. 4월~5월이면 번식을 위해 지상으로 나온다. 흰개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 때로 경부선철도 부설시 사용한 철도침목에 묻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개미는 각종 목재들의 속단 파먹기 때문에 건물 외곽은 멀쩡하게 보여 훼손 사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삼하게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 목조건화재의 천적이라 불리는 해충이다. 때문에 일본 미국 등에서는 목조건물을 지을때 반드시 방제처리를 한다.

발견경위 4월경 번식을 위해 지상으로 나온 흰개미를 응향각에서 발견한 것이 처음이다. 해인사 응향각의 경우 문지방 아래 장판과 바다에 흰개미가 갇혀 먹은 흔적이 보이고 건물 뒷편 기둥 곳곳에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 당초 해인사 측에서 4월에 발견된 흰개미에 대해 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자체조사에 두달이나 소요하고 문화재관리국에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지적이다.

82년 경기 파주 공순영릉의 순릉비각에서 흰개미의 식흔과 서식지가 발견된 이래 전북 남원 실상사 등에서 11건의 피해사건이 보고됐다.

해인사와 당국의 조치 해인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1년 일정으로 대대적인 흰개미 방제에 나섰다.

이번에 흰개미집이 발견된 응향각과 사운당은 문화재관리국이 긴급배정해준 3천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살충제 메틸 브로마이드 가스로 살충처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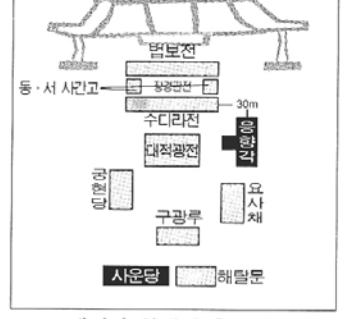
예정이다. 또 흰개미의 지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적판전과 장경판전 주위에 깊이 30cm의 구덩이를 관 뒤 방의(防蟻)제를 흙과 혼합처리해 물을 계측한다. 장경판전 뒷산의 소나무 그루터기로 제거할 방침이다.

해인사 방제작업에 쓰일 방의제는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방제처리 후에는 흰개미가 좋아하는 먹이인 소나무 재질의 목관을 해인사 주변에 설치, 주기적으로 이 목관을 관찰함으로써 흰개미의 침입 여부를 파악·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응급처리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의견 한성희전문위원(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은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비단 해인사만의 일이 아닌만큼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연구소의 실정에서 미리미리 제보를 해줘야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방제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이태녕 명예교수는 "침투한 흰개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훈증처리 외의 방법이 없다"며 흰개미 서식환경의 억제가 최선의 예방책 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해인사 흰개미 출몰지역



○응향각 내부에서 발견된 흰개미때의 서식흔적, 목조건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제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불교 교류 확대

조불련이 보낸 10명의 방북 초청장

불교계 인사 10명이 7월 25~28일 사이 조불련으로부터 '8·15 조국통일기원동맹'과 관련 방북 초청장을 받아 온 것은 불교계 대북교류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불교계 통일운동단체 및 각 종단은 그간 개별적 교류사업을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을 상대로 접촉을 전개해 왔다. 종단이나 대북교류 추진 단체의 공식적 방북이 없었던 점에서 10명의 인사에 대한 이번 초청의 의미는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초청인사들의 방북이 현실화 될 경우 △불추위의 대북사업으로 협영농장 설립·운영과 북한 불교유적 및 문화

할 문제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남북불교교류의 남북간 대화채널의 균형에 대한 문제다. 북한측의 교류 주체는 조불련 1곳인 반면 남한측은 조계종, 진각종, 불추위, 평불협 등 모두 4곳. 이같은 구도에서 자칫 종단이나 단체들이 개별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조불련측이 남한 불교계를 사인에 따라 선별 대응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 초청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대한 초청에서 종단협과 조계종의 대표인 남주스님이 제외된 것 등 북한측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갖는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초청 제외는 불교계 통일운동단체에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추진 사업에 대한 빅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기도하다.

신계사 복원·협영농장 등 기대 통일부 방북 승인여부 미지수

재 조사와 자료집 발간 사업, △평불협의 사리원 금강수공공장의 원활한 가동과 제2, 제3공장 설립, 신계사 등 금강산 사찰 복원사업, △진각종의 협영농장의 설립·운영과 북한 불교유적 자료집 발간, 심인당 및 복지관 개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을 주고 있다.

때문에 초청을 받은 종단이나 추진 단체의 방북여부가 고안되고 있으며 정부가 방북을 승인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북경회담에서는 8·15평화 관련 초청 건외에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불련측의 요청에 따라 8.15 법회 이후로 미뤄졌다.

10명의 방북초청과 관련 교계에는 원활한 대북교류를 위해 풀어나가야

이와관련 종단협은 22일 조계종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5개 종단 총무원장과 모임을 갖고 남북불교위원회(위원장 남한)로 대북추진부를 단일화해 개별 사안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불교위원회는 8월11일 오전 11시 종단협 회의실에서 그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북측의 8·15법회 초청을 계기로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간 대북추진사업이 '북방포교'라는 공동 화두가 어떻게 풀려져 나갈지 주목된다.

도원성 기자 (psdo@buddhania.com)

귀신이야기가 판을치고 있다. 영화·소설·방송·PC통신 등에 귀신이야기가 범람하고 있는데, 무더위를 식혀주려는 TV의 남방특집 귀신까지 합세하였다.

가뜩이나 불안한 IMF시대에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귀신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음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으스스한 원귀들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는 TV방송사들은 시청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야기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시한번 생각해야겠다.

남방특집 귀신이야기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KBS의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 나타난 귀신들

은 대부분 여자귀신들이다. 계모에게 살해 당한 딸, 머슴에게 독살된 처녀 등. 인간관성의 꿈이 좌절된 여우 또는 구렁이 등도 여자 원귀로 변신하여 한풀이를 한다.

KBS 2TV의 '미스터리 추적' MBC의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SBS의 '토요미스테리극장'은 귀신에게 혼란 제보자의 경험담을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토요미스테리극장'과 '미스터리 추적'은 불가사의를 과학적으로

로 검증한다는 명분아래 점과 내림 등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역인 무속인들은 귀신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점도치고 굿도 한다. 무속의 허와 실을 파헤치려 했으나 결국 재미에 머물거나 미신을 또는 운을 믿고 싶은 시청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불보(佛寶·진리)를 의면 하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마음이 항상 어두워서 남에 의해 미혹되며, 죽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대교양경)

부처님께서는 또 <불모출생경>에서 불퇴전의 보살은 잡사(雜事)를 말하지 않는다고 일러 주셨다. 여가까지 잡사 중에는 용신·야차·귀신·비인(非人) 등이 들어 있다. 반어(半語)라 하여 상응하는 여러 일에 대해 즐겨 말하라는 가르침이다.

방송의 역할이 국민 계도에 있다면 TV는 불안한 마음을 조정하는 귀신이야기를 자제해야한다. 교과서 귀신화등 학교에 만연하고, 소설 영화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귀신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로 검증한다는 명분아래 점과 내림 등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역인 무속인들은 귀신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점도치고 굿도 한다. 무속의 허와 실을 파헤치려 했으나 결국 재미에 머물거나 미신을 또는 운을 믿고 싶은 시청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불보(佛寶·진리)를 의면 하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마음이 항상 어두워서 남에 의해 미혹되며, 죽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대교양경)

부처님께서는 또 <불모출생경>에서 불퇴전의 보살은 잡사(雜事)를 말하지 않는다고 일러 주셨다. 여가까지 잡사 중에는 용신·야차·귀신·비인(非人) 등이 들어 있다. 반어(半語)라 하여 상응하는 여러 일에 대해 즐겨 말하라는 가르침이다.

방송의 역할이 국민 계도에 있다면 TV는 불안한 마음을 조정하는 귀신이야기를 자제해야한다. 교과서 귀신화등 학교에 만연하고, 소설 영화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귀신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금강산 위락시설 반대 70%

녹색연합 '올바른 금강산 개발' 토론회

국민 대다수는 환경친화적인 금강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이 7월28일 종로성당 회의실에서 개최한 '올바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성인남녀 5백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금강산에 카지노·골프장·케이블카 등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이 70%, 찬성 20%, 무응답 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금강산 위락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락시설을 반대한 이유는 '자연훼손 우려'가 55%, '자연경관 유지' 10%, '남한의 경제회복 우선' 8%, '서민위한

"환경친화적 개발 우선돼야"

둘어킬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의경존중(與敬尊崇)의 정성으로 써 길이 자연 훼손없는 조화로운 개발로 우리 민족정기가 어린 금강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연합이 조사한 '북한의 금강산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금강산의 상당수 사찰이 소실되었으나 일부 현존 사찰에 대해 보수·단청을 실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 숙박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등의 현존 사찰은 '특수 역사박물관'으로 지정, 공개하고 있으며 내금강 장안사 터 근처에 휴양소가, 신계사 터 근처에 향토음식점이 각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녹색연합이 7월28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개최한 '올바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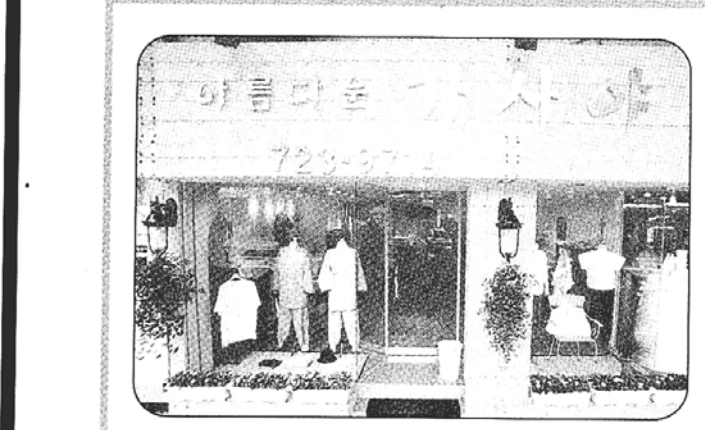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 서풍패리 기와때문에 천낭패리 대를보가 색이서야?
- ◆ 사철기와 재보수 이전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와,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회 매 통 합 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승복, 우리옷의 전당 가사야가 사부대중께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가사야 건지동 개점에 즈음하여 모든 스님, 불자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저희 가사야 임직원 모두는 그동안 스님, 불자님들의 호의와 배려를 잊지않고 보은하고자 전통의 멋과 현대 감각을 살린 승복, 우리옷을 만들어

신심을 들을 수 있는 제품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하실 때라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야 대표 김 여여성 합장

가사야 성중사 신한은행 제주은행

← 안국동 4거리 →

조계사 평화당 인쇄 현대 불교

가사야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71번지 Tel : (02)723-9714

가사야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멋을 보급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